

# 대구지역 九曲과 한강 정구

백운용\*

## 차례

1. 들어가며
2. 대구지역 구곡의 현황과 특징
  - 1) 대구지역 구곡의 현황
  - 2) 대구지역 구곡의 특징
3. 雲林九曲과 한강 정구
  - 1) 문제의 인식과 개인적 차원의 해결 제시 : 제1곡~제3곡
  - 2) 사회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제시 : 제4곡~제5곡
  - 3) 문제 해결의 球心, 정구의 도학 : 제6곡~제9곡
4. 맺음말

## 【국문초록】

대구지역에는 蘆淵九曲, 雲林九曲, 守南九曲, 臥龍山九曲 등 4곳의 구곡이 있다. 이 가운데 농연구곡은 정구의 제자인 최동집과 관련이 있으며, 운림구곡과 와룡산 구곡은 각각 정구의 강학처였던 泗陽書堂과 사수동을 원두로 삼고 있어 대구지역 구곡은 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운림구곡을 노래한 우성규의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은 정구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자신의 학문적 자세를 가다듬고 동시에 당면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정구와 대구지역 구곡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나타나는 작품이다.

우성규는 제1곡 '龍山'에서 나루를 물음[問津]으로써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과 당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안개와 노을이 자욱하다고 하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2곡 '魚臺'에서 열은 구름이 걷히고 봄빛이 드리운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 이어 제3곡 '松亭'에서 덩불 속에 우뚝이 서 있는 소나무를 노래하며 추위에도 시들지 않는 굳건한 기상을 본받겠다고 다짐한다. 제1곡~제3곡의 여정을 통해 우성규는 제시한 문제를 마음가짐을 확고히 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우성규는 제4곡과 제5곡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한 해결을 모색한다. 제4곡 '梧谷'의 외로운 오동나무는 고립된 개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오동나무는 詩想이 거문고로 이어지고 거문고는 다시 '知己'로 연결되면서 道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우성규는 물길을 따라 올라 제5곡 '江亭'에 이르러 수많은 선비들이 영욕에 매이지 않고 고매한 삶을 지향함을 보았다. 이들은 우성규와 뜻을 함께하는 知友들이며, 이들과 연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앞서의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5곡을 지나면서 제1곡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시 한번 극복되고 해결의 가능성은 더욱 커져간다.

제6곡에서 제9곡까지의 여정은 문제 해결의 구심이 정구라는 점을 노래한 것이다. 제6곡 '淵齋'는 '伊洛書堂'을 가리킨다. '이락'이 가리키는 바는 서사원과 정구이며, 또 주자학이라는 도도한 흐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는 사회적 연대의 구심과 매개의 역할을 하는데, 서사원과 정구는 연대의 구심이 되고, 주자학은 연대의 매개가 된다. 주자학을 매개로 한 연대는 제7곡 '仙槎'에서 서사원이라는 구심을 만나고, 이는 더욱 첨예화하여 제8곡 '鳳巖'에서 정구의 형상을 그려내며 마침내 제9곡 '泗陽書堂'에서 頂點인 정구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성규에게 운림구곡은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고 학문의 본령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또 서구열강이 각축하던 당시 도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정구는 그 과정의 도달점이자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 주제어

구곡, 한강 정구, 낙재 서사원, 경도재 우성규, 대암 최동집, 학암 신성섭, 대구지역 구곡, 운림구곡, 외룡산구곡, 농연구곡, 수남구곡, 구곡의 활용

## 1. 들어가며

조선조 일부 유학자들은 자신의 卜居地 주변 江河를 중심으로 아홉 구비를 설정하여 구곡원림을 경영하고, 그 굽이마다 시를 지어 자신의 흥취나 학문의 길, 도학의 연원 등을 노래하면서 천인합일 물아일체의 경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연원은 주희가 武夷山에 은거하며 武夷九曲을 경영하고 〈武夷棹歌〉를 읊은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주자학을 신봉하며 주희를 존송하는 마음이 구곡원림을 경영하고 〈무이도가〉를 차운한 구곡시를 짓는 문화를 향유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나아가 무이구곡도를 그려 완상하고 〈무이도가〉에 대해 비평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구곡문화’라 이를 만한 자연친화적이며 求道的인 유교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웠다.

조선조 구곡시의 창작과 구곡원림의 경영은 采芝堂 朴龜元(1442~1506)의 姑射九曲, 逍遙堂 朴河談(1479~1560)의 雲門九曲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퇴계 이황이 陶山九曲을, 율곡 이이가 高山九曲을 경영하면서 구곡원림의 경영과 구곡시의 창작이 그 체자문인에게로 확산되었다.<sup>1)</sup>

1) 성범중, “울산의 구곡과 구곡시” 『울산대곡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0, 61쪽.

그런 과정 속에서 대구·경북지역에도 수많은 구곡이 경영되었고, 지금은 전국에서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 대구·경북지역은 구곡문화의 본산이라 할 만하다.<sup>2)</sup>

대구지역은 팔공산과 비슬산 등 명산이 주위를 에워싸고 낙동강 금호강 등 대천이 그 곁을 감싸고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 퇴계학을 계승한 유학자들이 즐비하게 배출되어 구곡문화가 흥성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구의 구곡은 龔淵九曲, 雲林九曲, 守南九曲, 臥龍山九曲 등 4곳인데, 각각 팔공산과 비슬산, 금호강과 낙동강을 근거로 삼아 경영 되었다.<sup>3)</sup> 그 외에 최정구곡이 있다는 설이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존재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

한편 대구지역의 구곡 가운데 농연구곡은 정구의 제자인 최동집과 관련이 있으며, 운림구곡과 와룡산구곡은 정구의 강학처였던 泗陽書堂과 사수동을 원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구곡은 한강 정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대구의 구곡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그 가운데 사양서당을 원두로 삼은 운림구

2) 잠정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전국에는 구곡원림이 150여 곳 존재하고, 그 가운데 구곡시가 함께 있는 곳은 70여 곳이라고 한다. 경북에는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함께 존재하는 곳이 43곳, 대구에는 4곳이 있다.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452쪽, <경북의 구곡 일람표>.

3) 농연구곡은 팔공산에 설정되어 있으며, 수남구곡은 비슬산 자락인 최정산에 설정되어 있다. 또 와룡산구곡은 금호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운림구곡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금호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설정되어 있다. 각각의 위치와 경영 주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외에 서호병십곡 등 유사 구곡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구곡이라 이름한 것만을 대상으로 서술한다. 왜냐하면 서호병십곡의 출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정구와 구곡의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대구지역 구곡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위 네 편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곡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지점과 내용, 지향하는 의미 등을 밝혀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대구지역 학문에 정구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구지역 구곡을 통해 정구의 학문과 사상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구곡문화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에 성글게나마 그것을 계발하여 인문학적 자산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대구지역 구곡의 현황과 특징

### 1) 대구지역 구곡의 현황

대구에는 농연구곡, 운림구곡, 수남구곡, 외룡산구곡 등 4곳의 구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sup> 그 가운데 농연구곡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과 용수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용수천에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농연구곡은 臺巖 崔東集(1586~1661)이 정자를 지어서 은거했던 땅에 그의 5세손 百弗庵 崔興遠(1705~1786)이 농연서당을 짓고 그 골짜기 위아래에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8세손 止軒 崔孝述(1786~1870)이 아홉 굽이를 경영하며 〈龔淵九曲詩〉를 지어 구곡문화를 완성한<sup>5)</sup> 것으로 보인다.

4)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5)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35쪽.

“정자는 대개 三架四楹인데, 동쪽 두 칸은 洗心齋라 하였고 서쪽 한 칸은 濯淸軒이라 하였다. 합하여 龔淵書堂이라 편액하고 배우는 자들이 많이 모임에 대비하였다. 시내를 따라 위아래로 맑은 못 아홉 굽이를 얻어 굽이마다 시를 지어 그 승경을 기록하였다.”<sup>6)</sup>

또 최홍원의 요청으로 이상정이 〈龔淵書堂記〉를 지었는데, 여기에도 농연서당을 중심으로 구곡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sup>7)</sup> 이 기록으로 볼 때 최홍원이 농연구곡을 경영하며 구곡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집이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 최홍원이 지은 구곡시가 존재하지 않아 최홍원의 구곡 경영을 단정할 수 없다. 대신 최동집의 8세손 최효술의 문집에 〈농연구곡시〉가 남아 있어, 선대를 이어 구곡을 경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운림구곡은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景陶齋 禹成圭(1830~1905)가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수하는 지점인 사문진교부터 정구의 강학처였던 칠곡 사수동의 泗陽書堂까지 설정한 구곡원림이다.

우성규가 언제 운림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899년(고종36) 臨齋 徐贊奎(1825~1905)와 晚求 李種杞 등 여러 선비들과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유람하였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 참고할 만하다.<sup>8)</sup> 이때 우성규, 서찬규, 이종기 등 80여 명

6) “亭凡三架四楹 東二間 爲齋曰洗心 西一間爲軒曰濯淸 合而扁之曰龔淵書堂 以待學者之羣居 沿溪上下 得澄淵九曲 隨處題品 以誌其勝” 『百弗庵先生言行錄』 卷1 <年譜>.

7) “公山之一支 南走八九里 陡絕爲巖壁 面皆粉白 高十數丈 水出龍門 循山而下 至巖之陰而爲龔淵 兩旁巨石 橫臥如籠几然 水瀉其中 潔淸紺寒 在一壑最爲奇處 水聲喧聒 咫尺不辨人語 淵之得名以此 東行十數武 又南折爲鼓淵 巨石橫峙 飛瀑駕空 噴洩泡沫 白日霧雷交騰 水上下數百步之間 科而成淵者凡九曲 龔淵正當其中 足以管領上下 而淵之北寬衍深奧 可亭而俯焉” 『大山集』 卷44 「記」 <龔淵書堂記>

이 낙동강가 賞花臺에 모여 배를 띄우고 〈무이도가〉 시의 운자를 써서 각각 시를 짓는 시회를 열었는데, 우성규는 다음과 같이 감회를 토로하였다.

“낙동강과 금호강 두 물이 모이는 곳은 곧 대구와 성주 두 읍의 경계이다. 泗水 양양하니 한강선생이 남긴 향기를 경모하고 伊江 곤곤하니 낙재선생이 남긴 유풍을 상상한다. 觀魚 옛 臺에는 여전히 가을달이 찬물에 밝게 비치고 仙查 옛 나무터에는 의연히 고깃배가 긴 연기를 싣고 있다. 이제 여가의 좋은 놀이에 다행히 群賢이 모두 모였다. …… 연못 속 물고기 펄쩍 뛰어오르니 璿가 밝게 드러남을 살필 수 있고, 노을 속 따오기 나란히 날아가니 氣가 먼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다. 갓을 쓴 사람 5,6인이여, 沂水에서 읊조리고 돌아가리라던 뜻에 맞추어 뱃노래 두세 곡조로 무이의 곡에 화답하기를 바라노라.”<sup>9)</sup>

낙동강 연안, 특히 대구의 경우 현재의 강창교 너머 부강정을 중심으로 선비들의 문회와 선유가 빈번하였다. 위의 모임도 그런 전통을 이은 문화 행사였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성규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운한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을 짓고 이를 바탕으로 구곡을 설정하여 구곡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와룡산구곡은 鶴菴 申聖燮(1882~1959)이 와룡산 주변 금호강 일대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신성섭은 고려 개국공신인 申崇謙의 후

8) 『臨齋先生文集』 卷1 「詩」, <與禹聖錫[成圭]李器汝[種紀]諸人 舟遊洛江賞花臺 會者八十餘人 武夷九曲詩分韻 得荒字>  
 9) “夫洛琴二水之會 卽星邱兩邑之交 泗水洋洋 景寒爺之遺馥 伊江滾滾 想樂翁之餘風 觀魚舊臺 尙爾秋月之照寒水 仙查古渡 依然漁艇之載長烟 今暇日之遨遊 幸群賢之畢至 <중략> 淵魚物躍 乃察理之昭然 霞鷺齊飛 認得氣之先者 冠者五六 願與沂壇之歸 棹歌兩三 恭和武夷之曲” 『景陶齋先生文集』 卷11 「序」, <洛江船遊序>

손으로, 恭山 宋浚弼(1869~1943)의 문하에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 그는 만년에 칠곡 상지동에 은거하였는데, 후손의 증언에 의하면 자주 와룡산에 올랐다<sup>10)</sup>고 한다.

신성섭이 지은 〈臥龍山九曲歌〉에 구체적인 굽이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의 내용, 그리고 와룡산으로 제목을 정한 것 등을 통해 지점을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와룡산구곡은 와룡산에 있는 계곡이나 시내에 굽이를 설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江天漠漠天將暮(제1곡), 三曲我觀漁父般(제3곡), 魚躍澄清泗水潭(제4곡)” 등 금호강변의 풍광을 묘사한 부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와룡산구곡은 와룡산에서 굽어본 금호강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구곡의 지점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곡시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수남구곡은 대구의 유림이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은행나무 아래에杏檀을 세우고 詩會를 가지면서 가창의 산수가 주희가 경영하였던 武夷九曲과 닮았다고 생각하여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라고 한다. 현재는 제1곡 寒泉, 제2곡 興德, 제3곡 鶴鶴山, 제4곡 玉女峰, 제5곡 金谷, 제6곡 三山, 제7곡 鹿門, 제8곡 紫陽, 제9곡 白鹿 등 굽이의 이름만 전해올 뿐이다.<sup>11)</sup> 굽이의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수남구곡은 현재 달성군 가창면 냉천1리에서 시작하여 행정2리, 대일리, 삼산리, 우록1리를 거쳐 최정산 자락에 위치한 우록2리 백록에 이르는 굽이에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2013년 ‘대구지역 구곡’을 조사할 당시 필자는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학암의 손자 신창호씨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1) 『달성군지』 달성군지편찬위원회, 1992, 343쪽.

## 2) 대구지역 구곡의 특징

작자가 분명한 운림구곡, 와룡산구곡, 농연구곡 3곳을 통해 볼 때, 대구지역 구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두 퇴계와 학통이 이어져 있는 문인들이 경영한 구곡원림이라는 것이다. 농연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것은 대구 동구 둔촌동에 세거하고 있는 최동집, 최홍원, 최효술으로 이어지는 경주최씨 문중이다. 최동집은 靈山 俞譜(1565~1612)에게 나아가 배우다가 泗水에 나아가 정구를 스승으로 모셨으니, 연원으로 따져볼 때 퇴계와 관련 있는 문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운림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한 우성규는 퇴계를 존송한다는 의미에서 호를 ‘景陶齋’라 할 정도였다. <와룡산구곡시>를 지은 신성섭은 송준필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는데, 송준필은 사미헌 장복추·서산 김홍락의 제자이니, 퇴계와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황이 <閑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를 지은 이후 대구·경북지역 학자들에게 구곡 경영과 구곡시 창작의 문화가 퍼져나갔다. 18~19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유행은 정점을 이루었고, 유학자들에 ‘구곡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동의 도산구곡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황의 후손 李野淳(1755~1831)이 경주 양동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松壇에 도착하니 南鳴應이 이미 먼저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좌정하고 담소할 즈음에 이야순이 간간이 武夷九曲을 언급하며 “陶山에는 九曲이 있는데 玉山만 유독 구곡이 없을 수 없겠는가. 어찌 구곡을 品定하지 않는가?” 하였다. 모두 “그렇습니다.” 하고 마침내 함께 시내를 거슬러 오르며

굽이를 따라 수에 맞추어 구곡을 정하였다.<sup>12)</sup>

구곡을 설정하고 구곡시를 창작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어 나갔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구의 유학자들도 그들의 복거지를 중심으로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시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구지역 구곡이 퇴계와 학통이 이어져 있는 문인들이 설정하고 경영한 것임에도 그들이 구곡을 경영한 동기나 지점을 설정하며 노래한 대상은 정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농연구곡의 근거를 마련한 최동집은 정구의 제자이다. 정구는 일찍이 주자를 존송하는 마음이 깊었는데, 주자가 은거하였던 무이산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武夷誌』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주자를 존송하는 마음과 무이산에 대한 관심 등은 자연스럽게 무이구곡으로 이어졌을 것이며, 이를 이어받은 성주지역 선비들이 정구의 무흘정사를 중심으로 무흘구곡의 굽이를 명명하고 구곡의 각 지점을 적극적으로 작품화하였다.<sup>13)</sup> 같은 양상이 그의 제자 최동집에게 이어졌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농연구곡의 경영과 구곡시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운림구곡은 정구와의 관련성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운림구곡의 굽이를 노래한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은 구곡을 읊은 시와 총론을 포함하여 모두 1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곡이 龍山, 제2곡이 魚臺, 제3

12) “及到松壇 南廬 鳴應 自彥 已先待於此 俱下坐打話 健之 間及武夷九曲而曰 陶山有九曲 玉山獨不可無九曲 盍爲之品定乎 僉曰 諾 遂與溯上逐曲 排準如數” 『蒼廬集』 卷1 「詩」, <玉山九曲敬次武夷九曲十首> 并識.

13) 『무흘구곡 경관가도 문화자원 기본조사』 조사보고서, 김천시·경북대학교, 2013.

곡이 松亭, 제4곡이 梧谷, 제5곡이 江亭, 제6곡이 淵齋, 제7곡이 仙槎, 제8곡이 鳳巖, 제9곡이 泗陽書堂이다.

|         |                                      |
|---------|--------------------------------------|
| 天護雲林儘異靈 | 하늘이 운림을 보호해 참으로 신령하니                 |
| 山明曲曲水澄清 | 산은 굽이굽이 맑고 물은 맑고 맑아라.                |
| 扁舟欲覓滄洲路 | 조각배를 타고서 창주 길을 찾으려고                  |
| 廢和棹歌九曲聲 | 벗노래 이어 화답하고 구곡시를 지었네. <sup>14)</sup> |

운림은 칠곡 옷갓[上枝]의 옛 이름인데, 하늘이 보호하는 신령스러운 땅이라고 한다. 또 여기가 주희가 만년에 거처했던 滄洲精舍가 있는 곳이라 하였으니, 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을 거슬러 오른 그 끝 제9곡에 정구의 강학처인 사양서당이 있었으니, 여기가 바로 도의 근원이요 정구가 도학의 연원인 셈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와룡산구곡은 굽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시의 내용과 와룡산구곡이라는 제명에서 굽이의 시작과 끝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         |                                     |
|---------|-------------------------------------|
| 一曲源頭上一船 | 일곡이라 원두에서 조각배에 오르니                  |
| 雙雙飛鷺下長川 | 쌍쌍이 나는 해오라기 긴 내에 내려앉네.              |
| 江天漠漠天將暮 | 강가 하늘 아득하여 해 저물어 가는데                |
| 月入平沙更散烟 | 달빛이 평사를 비취 안개를 걷어내네. <sup>15)</sup> |

와룡산구곡은 원두에서 출발하여 강을 따라 내려가며 설정되었는데,

14)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總論.

15) 『鶴菴先生文集』卷1 「詩」 <臥龍山九曲歌> 一曲詩.

와룡산 정상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물굽이 전체를 대상으로 구곡을 설정하였다.<sup>16)</sup> 이렇게 볼 때, 원두는 칠곡 사수동에 내려오는 물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수에 사양서당이 있었으니, 와룡산구곡 또한 운림구곡처럼 정구를 도학의 연원으로 여겼다 하겠다.

셋째, 구곡시들이 대체로 入道次第의 求道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주자의 〈무이도가〉에 대해 조선조 유학자들은 입도차제의 載道詩로 보기도 하고, 因物起興의 서경시로 보기도 하며, 양자를 공유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구곡을 경영하며 〈무이도가〉를 차운한 구곡시를 지을 때 ‘도에 들어가는 순서[入道次第]’를 읊기도 하였고, ‘사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흥취[因物起興]’를 읊기도 하였으며, 이를 절충하여 사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흥취를 읊으면서 여기에 일정한 의미를 담은 ‘託興寓意’의 정서를 담기도 하였다.<sup>17)</sup>

대구지역 구곡은 이 가운데 주로 입도차제의 구도적 내용을 읊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와룡산구곡은 원두에서 강을 따라 내려가며 도의 적용과 발현을 노래했으며, 운림구곡과 농연구곡은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도의 근원을 추구한다.

|         |                                      |
|---------|--------------------------------------|
| 九曲龍門勢欲開 | 구곡이라 용문이 열리려는 형세인데                   |
| 春風和氣霽然來 | 봄바람 따뜻한 기운 포근히 내렸어라.                 |
| 源頭活水清如許 | 원두에 솟는 물 저렇듯이 맑으니                    |
| 深造方知本地恢 | 깊이 나아가야 무한한 본바탕을 알리라. <sup>18)</sup> |

16)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189~190쪽.

17)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29~40쪽.

18) 『止軒集』 卷1 「詩」, <龔淵九曲> 九曲詩

농연구곡 제1곡에서 거슬러 올라 드디어 도착한 용문에는 기세 좋게 맑은 물이 떨어지고 그 위로 따뜻한 봄기운이 내려앉는다. 맑고 포근한 기운의 근원은 어디인가? 깊숙이 잠재해 있는 넓디넓은 본바탕이다. 그 경지를 터득하기 위해 수양하며 도를 닦는 것이 유자의 삶이며, 최효술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체는 선조인 최동집의 학문과 절의였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와룡산구곡의 원두와 운림구곡에서 추구한 도의 근원은 모두 정구의 학문과 정신 세계로 수렴된다.

九曲書林藹藹然 구곡이라 서림이 깊고도 맑으니  
春來花柳滿前川 봄이 오자 꽃과 버들 앞 내에 가득.  
岡翁潭老遺芬地 강옹과 담로 향기 남은 이 땅에는  
一理昭昭靜裏天 밝고 밝은 一理, 고요 속에 빛나네.<sup>19)</sup>

一曲源頭上一船 일곡이라 원두에서 한 배에 오르니  
雙雙飛鷺下長川 쌍쌍의 해오라기 긴 내에 내려앉네.  
江天漠漠天將暮 아득한 강 하늘엔 해가 지려 하는데  
月入平沙更散烟 달빛이 평사를 비추자 안개가 걷히네.<sup>20)</sup>

위 시에서 형상화한 ‘밝고 밝은 一理’, ‘평사에 비친 달빛’은 모두 득도의 경지이다. 운림구곡은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 물기를 거슬러 올랐고, 와룡산구곡은 그 경지의 확산과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어찌 되었든 모두 도를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19)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泗陽書堂

20) 『鶴菴先生文集』卷1 「詩」 <臥龍山九曲歌> 一曲詩

넷째, 대구지역 구곡은 많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명산대천을 모두 아우르며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연구곡은 대구의 북쪽 팔공산 기슭 용수천에, 운림구곡은 대구의 서쪽 금호강과 낙동강가에, 수남구곡은 대구의 남쪽 최정산 발치 신천에, 와룡산구곡은 대구의 서쪽 와룡산 앞 금호강 일대에 설정되어 있어 산세가 약한 동쪽을 제외하고 남, 서, 북쪽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구지역 구곡을 문화 콘텐츠로 계발하고 인문학적 자산으로 활용할 때, 유용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구곡이라는 인문학적 자산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계발의 지역적 편중성을 피할 수 있으며, 구곡과 구곡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벨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구곡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 다른 지역 구곡과 차별화 된 특징은 정구의 영향과 정구에 대한 추송이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 퇴계와 학통이 이어지는 문인들의 경영, 입도차체의 형상화 등은 경북지역의 구곡에도 드러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또 한 인물과 연관된 구곡이 한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경우를 경북지역 구곡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지역 구곡의 의미 추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자산의 구축과 활용은 정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구지역 구곡시 가운데 정구의 학문과 정신 세계를 추송하고 이를 통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향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은 우성규의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이다. 이 작품은 도학의 근원을 정구에 두고 그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雲林九曲과 한강 정구

운림구곡은 우성규가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수하는 지점인 현재의 달성군 사문진교부터 정구의 강학처였던 칠곡 사수동의 사양서당까지 설정한 구곡원림이다. 우성규의 본관은 丹陽이며 자는 聖錫, 호는 경도재 또는 景齋라 하였다. 月谷 禹拜善(1569~1620)의 후손으로, 일찍이 문경 주흥산에 들어가 響山 李晚燾(1842~1910) 등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였고, 서울에 올라가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닦았다. 1878년(고종15) 蔭敍로 벼슬길에 나아가 繕工監假監役을 시작으로 尙衣院主簿, 北部令, 社稷令 등의 내직을 역임하고, 현풍현감, 영덕현령, 예안현감, 단양군수, 영월부사, 칠곡부사 등의 외직을 지냈다. 1892년 돈령부도정에 임명되었으나 <續歸去來辭>를 지어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고향으로 돌아와 경전을 공부하던 중, 甲午更張 이래 정치 사회적 소요가 심해지자 문경의 舊庄을 찾아갔다. 이후 다시 고향인 대구 상인동으로 돌아와 향촌에 머물면서 더욱 학문에 침잠하며 강학에 몰두하였다.<sup>21)</sup>

우성규가 언제 운림구곡을 설정하여 구곡시를 지었는지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1899년 서찬규 등과 함께 ‘낙동선유’의 모임을 가진 이후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때 우성규는 일흔의 나이로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강학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은 노성한 학자에게 유유자적한 만년을 허락하지 않았다. 20세기 벽두 대한제국은 바야흐로 열강의 각축 속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으며, 서구의 사상과 문물이 물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때 지식인 유학자들이 어떻게

21) 『景陶齋先生文集』 卷14 『附錄』 <行狀>

처신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성규는 낙동강 선유를 단순한 놀이나 유흥으로 여길 수 없었고, 학문의 근원을 찾아 학문적 자세를 가다듬고 선현을 만나 도를 지켜가는 방편으로 여겼던 것이다.<sup>22)</sup>

우성규의 이러한 마음은 구곡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윤림구곡시가 학문의 길, 도학의 연원을 찾아 나선다는 표면적 설정이면에 시대를 구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우성규가 구곡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찾았던 “道”는 도학으로서의 길이며, 선비의 처세이며, 또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였다.

#### 1) 문제의 인식과 개인적 차원의 해결 제시 : 제1곡~제3곡

윤림구곡 제1곡은 ‘龍山’이다. 당시 대구와 성주의 경계,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상화대가 우뚝 솟아 있고 사문진 나루가 있었는데, 제1곡 용산은 상화대의 암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우성규는 여기서 배를 띄워 금호강을 거슬러 오른다.

|         |                     |
|---------|---------------------|
| 一曲龍巖繫葉舟 | 일곡이라 용암에 조각배 매었다가   |
| 梢工副手溯長川 | 사공의 손 빌려 긴 강을 올라가네. |
| 問津往事憑無處 | 나루 물은 지난 일 찾을 곳 없고  |

22) 우성규는 서찬규와 함께 ‘낙동선유’의 모임을 가졌을 당시 사문진 나루에서 배를 띄우는 소감을 아래와 같이 읊었다. 한편 ‘학해의 진원을 찾으려 외로운 돛배를 강에 띄운다’는 표현에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지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구가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芳洲有約歲經三 是日登舟興轉酣 明月遲遲舫上待 澄波渺渺鏡中涵 瑟希曾點誰同浴 琴遇種期我不慚 學海眞源從此覓 孤棹泛彼大江南> ;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洛東船遊分韻得三字>.

惟見朝霞與暮烟 오직 아침 노을과 저녁 안개만 보이네.<sup>23)</sup>

우성규는 운림구곡 제1곡에서 나루를 묻는다. ‘나루’는 강을 건너는 곳이고 ‘강을 건넌’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니, ‘나루를 묻는다[問津]’는 것은 곧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조차 불가능하며 게다가 강가에 노을과 안개가 자욱하니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과연 그 끝이 맑고 맑은 원두일 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운림구곡시를 入道次第의 載道詩로 볼 때<sup>24)</sup>, 이는 학문의 길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이며 삶의 의미를 묻는 자기성찰적 질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대한제국은 국내외적 혼란 속에 서양의 문물은 개화라는 이름 아래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유구한 道學의 전통은 길을 잃고 그러한 도전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었다. 아침 노을과 저녁 안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처한 도학의 危機 상황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성규는 노을과 안개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면 학문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근원적 의심과 회의라 할 수 있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학문의 현실적 실현과 적용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때 ‘나루를 묻는 행위’는 도의 근원을 찾아 삶의 방향과 학문의 지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당면

23)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龍山朝霞

24) 구곡시를 서경시로 보는가, 재도시로 보는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운림구곡시>는 한강 정구를 원두로 하여 그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재도시로 볼 여지가 많다. 또 정구와 대구지역 구곡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이 논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도시로 보는 관점이 좀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오늘날 과거의 경관을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하였다. 인문학적 자산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경관의 변화를 우회하면서 구곡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재도시적 해석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우성규의 바람이 형상화한 것이다.

운림구곡 제2곡은 ‘魚臺’이다. 사문진 나루에서 금호강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금호강과 진천천이 합수하는 곳에 바위벼랑이 있는데, 여기가 제2곡이다.

|         |                                     |
|---------|-------------------------------------|
| 二曲移船繞碧峰 | 이곡이라 배 저어 푸른 봉우리 돌아가니               |
| 魚臺花木燁春容 | 어대의 꽃과 나무 봄빛을 드러내네.                 |
| 江流浪息微雲捲 | 흐르는 강물 잠잠해지고 열은 구름마저 걷히니            |
| 帆外山光翠萬重 | 돛대 너머 산 빛이 푸르디 푸르도다. <sup>25)</sup> |

노을과 안개가 자욱하여 의심과 회의가 가득했던 제1곡의 풍광이 제2곡에 이르러 꽃과 나무가 봄빛을 드러내며 자신을 반기는 곳으로 급반전하였다. 왜 그런가? 안개와 노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연물이다. 게다가 이곳은 진천천이 금호강과 합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결이 갑자기 약해져 흔들리는 배가 안정감을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학문에 대한 의심과 회의도 학문을 꾸준히 연마하다보면 점점 확신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물결이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 안개와 노을이 사라지면서 학문에 대한 회의와 도의 경지 즉 원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함은 사라지고, 회의는 차츰 확신으로 옮겨간다.

제2곡의 이러한 묘사는 우리가 학문을 익히는 과정과 유사하다. 학문을 시작할 때는 확신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다가 차츰차츰 깨달아가면서 학문에 맛을 들여가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회의는 학문을 연마하면서 사라져가고, 반복하고 수련하는 과정 속에 막연함은 분명함으로 다

25)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魚臺春水

가온다. 물결 너머 저 앞에 보이는 푸르고 푸른 산은 학문에 대한 어렵פות한 확신을 표상한 것이다.

이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격동의 시기에는 세상에 휩싸이기보다 오히려 차분히 앉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구름과 안개가 때가 되면 사라지듯 격동도 때가 되면 사라져 다시 안정한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인식은 실천이 동반할 때 실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우성규의 여정은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운림구곡 제3곡은 ‘松亭’인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금호강 제방공사를 하기 전에는 강물이 지금의 진천동 앞까지 차올랐으며 소나무 숲이 즐비하였다고 하는데, 물길이 막히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                                     |
|---------|-------------------------------------|
| 三曲松風滿載船 | 삼곡이라 솔바람 배에 가득 불어오니                 |
| 蒼髯赤甲幾經年 | 푸른 수염 붉은 껍질 몇 해나 묵었을까?              |
| 超然特立荊榛裏 | 초연히 가시 덩굴 속에 우뚝이 서서                 |
| 寒後貞姿正自憐 | 추위에도 곧은 모습 정말로 어여쁘네. <sup>26)</sup> |

어대를 지나 금호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우성규는 소나무 숲을 만난다. 소나무는 흔히 ‘歲寒後凋’의 기상을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성규도 솔숲을 보고 잡목들 사이에 우뚝 서서 추위에 굴하지 않는 기상을 차탄한다.

26)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松亭晚風

하지만 우성규가 주목한 것은 소나무의 기상보다는 그러한 기상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푸른 수염과 붉은 갑옷이 몇 해나 묵었을까 하고 노래한 것은 소나무가 무수한 바람서리를 견디고 이겨냈기에 그러한 기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선언이다.

학문을 익혀 도에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로이다. 지름길도 없으며 편안한 길로만 이어지지도 않는다. 소나무가 험난한 세월을 견뎌내고 푸른 수염에 붉은 갑옷을 자랑하며 당당하고 늠름한 기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학문도 성숙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우성규가 붉은 껍질 푸른 잎사귀의 위용을 보고 '어여쁘다'며 탄성을 질렀던 것이다. 이는 추위에도 시들지 않는 굳건한 기상을 본받아 더욱 학문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소나무의 굳건한 기상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은 소나무 군락에서보다 잡목과 섞여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우성규는 유학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가고, 서구의 다른 학문과 사상이 난립하며 유학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각축하는 당시를 잡목 숲에 소나무가 우뚝한 모습으로 형상하였다. 잡목 숲에서 한겨울 추위가 몰아칠 때도 변치 않는 기상을 뽐내며 올곧은 자태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소나무이다. 마찬가지로 시대의 혼란함을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正道도 오직 儒學뿐인 것이다.

일흔 살 노성한 선비 우성규는 과연 자신의 삶이 바른 길을 따라 걸어왔던가, 또 이 세상의 문제를 이 학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한다. 학문의 길, 시대의 문제는 안개와 노을이 자욱한 강가처럼 어렵고 암울하였다.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 과제 상황은 근본적이면서 실천적인

문제였기에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듯하다.

강을 거슬러 오르며 물살이 잦아들고 안개가 걷히는 것을 경험한 그는 이러한 문제도 이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의심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솔숲을 만나게 되고 소나무의 굳건한 기상이 만고의 풍상을 견뎌낸 결과임을 인식하는 순간, 지금까지 쉽 없이 학문에 매진하여 세한후조의 기상을 갖추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깨닫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나 이념이 있고, 또 시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학문을 닦아 ‘爲己’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사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더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제1곡에서 제3곡에 이르는 길은 이러한 깨달음을 확인하는 길이였다.

## 2) 사회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제시 : 제4곡~제5곡

운림구곡 제4곡은 ‘梧谷’이다. 오곡이라 이름하고 시에서 외로운 오동나무가 바위 가에서 우뚝하다고 하였으니 오동나무가 홀로 우뚝이 솟은 자리를 설정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제방이 만들어지고 물길 변하는 세월 속에서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                                      |
|---------|--------------------------------------|
| 四曲孤桐榜石巖 | 사곡이라 외로운 오동 바위 곁에서                   |
| 風枝露葉碧氤氳 | 흔들리는 가지 이슬내린 잎사귀 푸른빛 드리우네.           |
| 瑤琴古操誰能解 | 거문고 옛 곡조를 누가 알 수 있으리오                |
| 流水洋洋月滿潭 | 출렁출렁 물 흐르고 달빛은 못에 가득. <sup>27)</sup> |

27)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梧谷霽月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우성규는 바위 가에 우뚝 솟아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잎사귀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외로운 오동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오동을 통해 거문고를 유추해내고 이어서 거문고의 달인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를 떠올린다. 이는 자연스럽게 ‘知己’와 연결되니 제4곡의 핵심은 고독과 지기라 할 수 있다.

제3곡에서 비록 학문의 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붉은 갑옷을 입고 푸른 수염을 번뜩이며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허다한 괴로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이미 서구의 사상과 개화의식은 사회 저변에 침투하여 우성규의 다짐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외로운 오동나무에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이다.

이는 제3곡을 경유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는 인식의 표현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해결할 수는 있는 것인가? 우성규는 지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 옛날 종자기가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안 것처럼 도를 함께 하는 道伴이 그의 인식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물결에 비친 달빛이 그런 희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운림구곡 제5곡은 ‘江亭’이다. 강정은 浮江亭을 말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그 터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다. 부강정에서 수많은 문인 학자들이 모여 자주 시회를 열고 강론하였으며, 여기를 기점으로 선유를 즐기기도 하였는데, 대표적 인물로는 한강 정구(1543~1620), 樂齋 徐思遠(1550-1615), 慕堂 孫處訥(1553~1634), 旅軒 張顯光(1554~1637), 養直堂 都聖俞(1571~1649) 등이 있다.

|         |                                     |
|---------|-------------------------------------|
| 五曲行舟入洞深 | 오곡이라 배를 저어 깊은 마을 찾아드니               |
| 巍然石楫出疎林 | 돌기둥 높다랗게 성근 숲에 솟았어라.                |
| 此間儘有瑰奇士 | 이 사이에 진실로 뛰어난 선비 있었으니               |
| 爵祿平生不入心 | 평생토록 벼슬살이 마음 쓰지 않았네. <sup>28)</sup> |

우성규가 제5곡 부강정에 이르니 깊숙한 마을을 배경으로 성근 숲 사이로 높다랗게 솟은 돌기둥이 자리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세속의 광영에 뜻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학문에 몰두하는 뛰어난 선비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지기’이며 우성규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었다. 제4곡의 문제 상황은 외로움과 지기였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 제5곡에 이르러 영욕에 얽매이지 않는 수많은 뛰어난 선비들을 만난 것이다. 이들은 부강정에서 강학하던 동시대의 선비들이기도 하고, 선유를 즐기며 도학을 논하였던 선배 학자들이기도 하다.

제1곡에서 제3곡에 이르는 길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길, 시대의 구원이라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 연대하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낼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성규는 제4곡에서 고독과 지기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제5곡에서 우뚝한 선비들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이 지점에서 앞서의 회의는 다시 한 번 극복되어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간다.

### 3) 문제 해결의 球心, 정구의 도학 : 제6곡~제9곡

운림구곡 제1곡에서 제기되었던 학문의 길과 시대의 구원이라는 과제 상황은 개인적 차원의 성실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극복이라는 방법을 통

28) 『景陶齋先生文集』 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江亭石楫

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대에는 매개와 구심이 필요하다. 즉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구곡시에서 제5곡은 대체로 구곡을 경영하는 주체가 머무르는 강학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성규가 설정한 부강정은 한 사람의 학자나 문인이 주인을 자처할 만한 공간이 아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주인은 따로 있으나 모두가 주인처럼 사용하는 공간이니, 선비라면 누구나 찾아와 강론하고 시를 읊을 수 있었다. 부강정에 모인 선비들이 뛰어나긴 하지만 모두가 정자의 주인인 그들과의 연대는 매개와 구심이 없어 다소 느슨해 보인다. 느슨한 연대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기에 우성규는 연대의 매개와 구심을 찾아 다시 강을 거슬러 오른다.

운림구곡 제6곡은 ‘淵齋’이다. 연재는 못가에 임해 있는 재실을 뜻하는데, 후학들이 정구와 서사원(1550~1615) 두 선생의 강학처에 세운 ‘伊洛書堂’을 가리킨다.

六曲釣磯在碧灣 육곡이라 푸른 물굽이에 낚시터 있으니  
世間榮辱不相關 人間 세상 영욕과는 무관한 곳이네.  
臨淵像想扁齋意 못가 다가가 집 이름 뜻 생각하니  
綠水悠悠白日閒 푸른 물 유유히고 밝은 해 한가롭네.<sup>29)</sup>

제6곡에서 이락서당을 만난 우성규는 집 이름의 의미를 생각한다. ‘伊洛’은 伊川과 洛江에서 한 글자씩 취한 것이다. 서사원의 거처가 이천에 있었고 정구는 성주, 칠곡, 대구, 창녕 등 낙동강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니, ‘이락’은 정구와 서사원을 기리고 추모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락

29)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淵齋釣磯

서당의 좌우 협실 편액을 慕寒堂과 景樂齋라 하였으니, 그 뜻은 더욱 분명해진다. 한편 ‘이락’은 주희의 『伊洛淵源錄』에서 유래한 이름이기도 하니, 이락서당은 주자학이 맥맥히 이어져온 곳이기도 하다.

우성규는 부강정에서 지기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였다. 연대에는 매개와 구심이 필요하다. 이락이라는 이름은 이 매개와 구심을 동시에 포함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락의 한 의미인 주자학은 도학의 근원으로서 선비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다른 의미인 정구와 서사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도학의 구심이기 때문이다. 우성규가 이락서당에서 주위의 경관보다 ‘이락’이라는 이름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운림구곡 제7곡은 ‘仙槎’이다. 선사는 신라시대의 古刹 仙槎庵이 있었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선사암은 마천산에 있는데, 암자 곁에 崔致遠(857~?)이 벼루를 씻던 못이 있다’<sup>30)</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 때문에 제7곡을 읊으면서 학과 신선을 노래하였다.

|         |                                      |
|---------|--------------------------------------|
| 七曲沿回又一灘 | 칠곡이라 굽어 도니 또 하나의 여울인데                |
| 雲中鶴舞正堪看 | 구름 속에 춤추는 학 정히 볼 수 있겠네.              |
| 箇中倘有仙人否 | 그 가운데 혹여 신선이 계시는가                    |
| 笑指巖間白屋寒 | 바위 사이 차가운 집 웃으며 가리키네. <sup>31)</sup> |

최치원이 상징하는 것은 도맥의 精髓이다. 최치원은 우리 유학의 鼻祖로 추앙받는 인물로, 그에 의해 비롯된 학문의 전통이 고려를 지나 조선으로 이어졌으며 급기야 이황에게서 열매를 맺어 우성규에게 전해졌다. 그 최치원의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6 「慶尙道」 大丘都護府

31) 『景陶齋先生文集』 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鶴舞春雲

도맥을 누가 잇고 있는가? 바위 사이 서늘한 기상을 뿜내는 집의 주인이다.

선사는 다사 출신의 문인 학자들이 강학하던 곳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사원이다. 게다가 선사골에는 서사원의 위패를 모신 이강서원이 있다. 제6곡에서 연대의 구심적 존재로서 정구와 서사원을 만난 우성규는 제7곡에서 그 한 맥인 서사원과 조우한 것이다.

운림구곡 제8곡은 ‘鳳巖’이다. 제7곡 선사에서 6km 정도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와룡대교를 만나게 되는데, 와룡대교와 마주보고 있는 바위산이 봉암이다. 원래는 물가 쪽으로 더 나와 있었으나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학이 춤추는 선사의 물길에서 우성규는 도맥의 한 줄기인 서사원을 만났으며, 그 줄기가 뻗어 나온 원류를 찾아서 다시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서사원의 학문은 어디에서 비롯하였는가? 한강 정구이다. 연대의 구심은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정구를 찾는 걸음으로 옮겨지고 이때 만난 것이 봉암이다.

우성규가 봉암을 운림구곡 제8곡으로 설정한 것은 武屹九曲의 제1곡 ‘鳳飛巖’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봉비암은 회연서원의 뒤에 자리한 야트막한 바위산이다. 회연서원 뒷산에 웅거한 봉황은 한강 정구를 표상하는 존재인데, 금호강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서 ‘봉암’을 만났으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                                       |
|---------|---------------------------------------|
| 八曲巖高妙境開 | 팔곡이라 바위 높고 묘한 지경 열리니                  |
| 群峰羅列衆波洄 | 뭇봉우리 늘어선 데 물결이 휘어 도네.                 |
| 滿山佳氣禽先得 | 온산 아름다운 기운 새들이 먼저 아니                  |
| 翼翼朝陽鳳下來 | 아침 햇살에 날개짓하며 봉황이 내려앉네. <sup>32)</sup> |

32) 『景陶齋先生文集』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鳳巖朝陽

제8곡을 지나며 우성규는 물결이 휘어 도는 곳에 佳氣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또 거대한 봉황이 내려앉은 듯한 위용을 뽐내며 도도한 물길을 내려다보고 있는 우뚝한 바위도 보았다. 순간 우성규는 정구의 위패를 모신 회연서원 뒷산의 봉비암을 떠올렸다. 그리고 우성규는 넘실대는 물길을 내려다보며 당당하게 서 있는 봉암을 통해 정구의 인품을 표상하고, 서기를 내뿜으며 깃드는 봉황을 통해 정구의 학덕을 형상화하였다. 이렇게 정구의 인품과 학덕을 상징적으로 봉황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제9곡에서 만나게 되는 정구가 도학의 길, 시대의 구원을 해결할 구심임을 분명히 하였다.

운림구곡 제9곡은 ‘泗陽書堂’이다. 이곳은 정구가 만년에 泗陽精舍를 짓고 학문에 몰두하며 제자를 길렀던 곳인데, 한강 사후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문인 제자들이 1651년(효종2) 이곳에 泗陽書堂을 건립하여 한강을 주벽으로 하여 석담 이운우를 배향하였다. 그 후 사양서당은 1694년(숙종20) 지천면의 옷갓마을로 이진 되었고 사수동에는 빈터만 남았다가 최근 한강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양정사를 복원하였다.

|         |                                    |
|---------|------------------------------------|
| 九曲書林藹藹然 | 구곡이라 서림이 깊고도 맑으니                   |
| 春來花柳滿前川 | 봄이 오자 꽃과 버들 앞 내에 가득.               |
| 岡翁潭老遺芬地 | 강옹과 담로 향기 남은 이 땅에는                 |
| 一理昭昭靜裏天 | 맑고 밝은 一理 고요 속에 빛나네. <sup>33)</sup> |

사양서당은 정구의 학문적 핵심이 갈무리 되어 있는 곳이다. 밝은 一理가 고요 속에 빛난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모든 이치가 뿜어져 나와 세상을 채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자신의 학문적 연원이 결국 정구에게 있고,

33) 『景陶齋先生文集』 卷2 「詩」, <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泗陽書堂

정구가 걸었던 길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이다.

우성규에게 운림구곡은 생의 뒀안길에서 학문의 자세를 가다듬고 학문의 본령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指南이기도 하였다. 우성규는 제1곡에서 제3곡까지의 길을 통해 학문의 길과 시대의 구원이라는 과제 상황은 개인적 차원의 성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제4곡, 제5곡에서 知己를 통한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하였다. 이때 연대의 매개와 구심이 필요한데, 제6곡에서 제9곡까지의 길을 통해 주자학을 매개로 하여 대구 지역에 학문의 씨를 뿌린 정구를 구심으로 삼는다면 자신을 완성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굳건한 방안이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정구의 학문을 관통하고 있는 내면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맺음말

정구의 학문은 물을 따라 대구지역으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낙동강을 따라 이황의 학문이 성주의 정구에게로 이어졌고, 정구가 칠곡에 거주하면서 학맥은 금호강을 따라 대구 곳곳에 스며들었다. 안동에서 성주로, 성주에서 다시 대구로 이어지는 학맥의 정점에 정구가 있었기에 대구의 문인 학자들은 정구를 추앙해 마지않았다.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시를 창작하는 문화 활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구에 존재하는 농연구곡, 와룡산구곡, 운림구곡 등에는 직·간접적으로 정구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 가운데 운림구곡은 시를 통해 볼 때, 정

구의 학문을 원두로 삼아 삶의 길을 바로 잡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성규의 자기성찰적 求道の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구곡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도를 추구하는 행위는 우성규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유효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버려두고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대구의 학문은 정구의 영향을 많이 입었다. 그런데 그 학문의 정수와 핵심을 교육하거나 체험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사양정사를 복원하였지만 건물 위주의 공간이라 한계가 있다. 그런데 대구지역 구곡은 정구의 학문과 그의 영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대구의 학문을 통괄하는 거대 담론이 펼칠 수 있는 현장이다. 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곡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九曲街道의 조성이다. 대구의 구곡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구의 북, 동, 서쪽을 아울러 계발할 수 있으니, 지역적 편중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금호강을 중심으로 물길을 따라 조성되었기에 조금의 가공만 거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연구곡의 경우 팔공산 둘레길과의 연계를 생각할 수 있고, 운림구곡은 금호강 자전거길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금호강 구곡 선유의 부활이다. 부강정을 중심으로 대구의 문인·학자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학문을 강론하던 전통이 오래 전에 단절되었다. 대구를 교육 문화의 도시라 일컫지만, 문화적 역량은 미미하다 할 수

있다. 마침 부강정을 중심으로 고령강정보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량도 넉넉한 편이다. 상화대를 시작으로 금호강을 거슬러 오르는 선유 문화를 부활시킨다면 문화 도시로서의 대구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대구시티투어와의 연계이다. 시티투어는 버스로 이동하며 전통과 문화, 과학과 환경 등에 대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의 구곡을 시티투어의 과정에 편입한다면 그 속에서 정구의 학문과 그의 영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구의 학문을 통괄하는 거대 담론을 펼칠 수 있다.

## 참고문헌

『景陶齋先生文集』

『달성군지』

『臨齋先生文集』

『무흘구곡 경관가도 문화자원 기본조사』 조사보고서, 김천시·경북대학교, 2013.

『百弗庵先生言行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止軒集』

『蒼廬集』

『鶴菴先生文集』

성범중, “울산의 구곡과 구곡시” 『울산대곡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0.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II』, 경상북도·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김문기, 『대구의 구곡문화』, 대구광역시·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Abstract

## Study on Gugok(九曲) of Daegu Region and Jeong Gu

Baek, Woon-Young

Daegu·Gyeongbuk region has Gugok wonlim and Gugok-si the most in the nation, which can be called the cradle of Gugok culture, also, in Daegu, Nongyeon gugok(龔淵九曲), Woonlim gugok(雲林九曲), Sunam gugok(守南九曲), and Waryongsan gugok(臥龍山九曲), etc. are existed. Nongyeon gugok is related to Choi, dong-jib, a disciple of Jeong Gu, and Woonmun gugok and Waryongsan gugok are based on Sayang seodang(泗陽書堂) and Sasudong, Jeong Gu's discipline place, accordingly, Daegu gugok can be said to be closely related to Jeong Gu.

Among them, Woo, seong-gyu's <Yongmuyidogawoonbuwoonlimgu(用武夷棹歌韻賦雲林九曲)> is based on Jeong Gu with its origin, contextually, it emphasizes that reviving his spirit is a ke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eriod, therefore, it can be said to be the work that most emphasizes the relation between Jeong Gu and Daegu gugok.

When analyzing Woo, seong-gyu's gugok poem, song no.1, no.2, and no.3 expressed the perception on the problem situation of early 20th century, crisis of study and revolution of time, intending to solve them in personal level. Song no.1, 'Yongsan(龍山)', suggested the problem situation of that period regarding asking naru [Munjjin(問津)], fog and sunset are thick, song no.2, 'Eodae(魚臺)', felt spring view, and song no.3, 'Songjeong(松亭)', sang the spirit of pine. This can be said the resolution to strive for study by emulating the firm spirit which does not wither even in the intense cold, which is the metaphor of the problem situation.

Song no.4 and no.5 emphasized overcome of crisis through social solidarity beyond individual level. In song no.4, a lonely paulownia of 'Ogok

(梧谷)' was connected with geomungo, again, with 'Jigi(知己)', importance of 'Doban(道伴)' was cognized. Also, many scholars of the previous period and the relevant period stood lofty in song no.5, 'Gangjeong(江亭)'. Woo, seong-gyu viewed possibility of problem solving through solidarity with classical scholars, and in advance doubt goes forward to a bigger confidence by being overcome again.

The journey from song no.6 to song no.9 continues to the confidence that the center of problem solving is in Hangang Jeong Gu. In song no.6, in the name 'Yirak(伊洛)' of 'Yeonjae(淵齋)', it met Seo, sa-won and Jeong Gu, also, the lofty stream of neo-Confucianism. This met Seo, sa-won in song no.7 'Seonsa(仙槎)' by being concretely realized, eventually met Hangang Jeong Gu as the central part of problem solving in song no.9 'Sayangseodang(泗陽書堂)' via song no.8 'Bong-am(鳳巖)'. For Woo, seong-gyu, Woonlim gugok was a process to straighten the attitude of study and reconfirm the essence of study in the backwater of life as well as a process to search the method to solve social problems, where Jeong Gu was the answer of the problem.

Meeting with Jeong Gu via waterway was not limited only to Woo, seong-gyu. Human cannot but face problem situation even as time goes by, and the method to solve this should be learned from the sages of the past. Besides, humane value of gugok is infinite. It could be appli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insight of life, enhancement of social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ancestors' cultural assets, etc. Accordingly, today it should not be abandoned, but be restored by devising various methods.

#### Key Word

Gugok, Hangang Jeong Gu, Nakjae Seosawon, Gyeongdojae Woo, seong-gyu, Dae-am Choi, dongjib, Hagam Sin, seongseob, Daegu gugok, Woonlim gugok, Waryongsan gugok, Nongyeon gugok, Sunam gugok, utilization of gugok

▪ 논문투고일 : 2016.1.10. 심사완료일 : 2016.2.1. 게재결정일 : 2016.2.12.